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243-277
<https://doi.org/10.29212/mh.2024..133.24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25전쟁 이전 이승만 대통령 연설 연구

- 국가안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김민식*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김명섭**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목 차
1. 머리말
 2.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연합(UN)의 대한민국 승인까지(1948.7.24~1948.12.12)
 3. 국제연합(UN)의 대한민국 승인 이후 주한 미군 철수까지 (1948.12.12~1949.6.30)
 4. 주한 미군 철수 이후 6·25전쟁 발발까지 (1949.6.30~1950.6.25)
 5. 맺음말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1948년 초대 대통령 취임 이후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들을 전수 조사하고, 그 내용을 분석

* 제1저자

**교신저자

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대통령기록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설들보다 훨씬 많은 209회 이상의 연설들이 확인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1948년 7월 24일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연합(UN)이 대한민국을 승인한 12월 12일까지 41회의 이 대통령 연설들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대통령의 연설들은 대한민국 독립정부의 국내적 안착과 국제적 승인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둘째, 1948년 12월 12일 이후 주한 미군이 철수하는 1949년 6월 30일 까지의 시기에는 76회의 대통령 연설들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대통령 연설들은 중국공산당의 내전 승리와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에 즈음해서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를 강조했다.

셋째, 1949년 6월 30일부터 1950년 6·25전쟁 전까지의 시기에는 92회의 대통령 연설들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대통령 연설들에서는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진주했던 미군의 철수 이후 한반도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북진통일에 관한 언급도 있었지만, 공격보다 방어에 더 강조점이 있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였던 대한민국에서 1948년부터 1950년까지의 대통령 연설들은 국가안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국제사회를 향한 영어 연설을 통해 안보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제헌헌법이 규정하고 있던 영토의 회복을 위한 북진통일론도 제기되었지만, 당시 대한민국이 처해 있던 안보위협에 관한 연설들이 더 많았다.

주제어: 대통령 연설, 이승만, 국가안보

(원고투고일 : 2024. 10. 9.,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9.)

1. 머리말

이 연구는 1948년 헌법을 통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1948년부터 1950년 6·25전쟁 발발 전까지 실시한 연설들을 전수 조사하고, 당시의 국가안보 상황과 연계하여 분석했다. 대통령은 법률이 규정하는 권력뿐만 아니라 “말의 권력(power of words)”을 지닌다.¹⁾ 대통령의 연설은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책을 정당화하고 국민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는 중요한 정치적 기제이다.²⁾ 특히, 청년 시절부터 정치·외교 활동에서 연설을 비중 있게 활용해 온³⁾ 이승만(李承晩, 1875~1965)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연설문들을 직접 작성하고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

-
- 1) Jeffrey S. Ashley and Marla J. Jarmer, *The Bully Pulpit, Presidential Speeches, and the Shaping of Public Policy*(Lanham: Lexington Books, 2016).
 - 2) Murray Edelman, *Constructing the Political Spectacl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113; Gary R. Hess, *Presidential Decisions for War: Korea, Vietnam, the Persian Gulf, and Iraq*(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9), p.2.
 - 3) 全英雨, “李承晩의 演說活動에 대하여: 1895年~1942年”, 『畿甸語文學』 第3輯, 1988, 51-76쪽; 이은선, “이승만의 남선 순행과 정음 발언의 의미 분석”, 『韓國政 治外交史論叢』 제39집 2호, 2018, 39-74쪽; 한서영·김명섭, “미국 유학 시기 이승만 강연활동의 양상과 함의”, 『국제정치논총』 제59집 제2호, 2019, 363-95쪽; 한서영, “미일전쟁 시기 이승만의 연설활동과 공공외교, 1941-1945”, 『국제정치논 총』 제61집 제3호, 2021, 83-119쪽.
 - 4) “From Mrs. Syngman Rhee to Dr. Oliver”(1949.2.5), 國史編纂委員會, 『大韓民 國史資料集 29: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 2(1949~1950)』, 果川: 國史編纂委員會, 1996b, 26쪽.

6·25전쟁 전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미(對美) 외교는 연구되었지만,⁵⁾ 신생국의 존립을 위협했던 대내외 안보 상황에 맞서 전개된 그의 연설들은 전체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다. 1948년 대통령 취임 이후 6·25전쟁 발발 직전까지의 이승만 대통령 연설들은 통사(通史)적 연구들⁶⁾과 연설학 연구들⁷⁾에서 일부만 분석되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기록관이 제공하는 해당 시기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문들도 20건에 불과하다.⁸⁾ 이에 비해 이 연구는 이 시기 방송 및 영어 연설을 포함하여 총 209건의 이승만 대통령 연설들을 전수 조사했으며, 그 가운데 국가안보적 성격이 분명한 158건의 연설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 시기의 대통령 연설들은 다시 국제연합(UN)이 대한민국 독립정부를 승인한 1948년 12월 12일, 그리고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진주했던 미군이 철수한 194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의 소시기로 구분될 수 있었다.

연구자료로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연설문들에 더해서

-
- 5) 윤시원, “제1공화국 초기 군사외교의 실패에 대한 고찰 1948~1950: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중심으로”, 『軍史』 第77號, 2010, 217-49쪽.
- 6) 李昊宰, 『韓國 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 解放8年 民族葛藤期의 反省』, 서울: 法文社, 1986, 337-47쪽;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1948~1950 민주주의·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서울: 역사비평사, 2002, 285-302쪽; 손세일, 『이승만과 김구. 제7권, 제3부 어떤 나라를 세울까 1945~1950(II)』, 서울: 조선뉴스프레스, 2015, 406-758쪽.
- 7) Hee-wan Yang, “A Critical Edition of Major Speeches by Rhee Syngman and Park Chunghee on the Issue of Korean Unification, 1945-1979”,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85; David A. Frank and WooSoo Park, “Syngman Rhee, Robert T. Oliver, and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Global Cold War”, *Rhetoric Society Quarterly* 48-2, (2018), pp.207-26.
- 8) 대통령기록관은 이 시기 이 대통령의 연설, 성명, 담화 등을 168건 제공하며, 이 중 연설은 20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검색일: 2024.10.2).

『李大統領訓話錄』(김광섭⁹⁾ 편 1950), 『大統領李承晩博士談話集』(공보처 1953), 국회회의록, 당시 신문들, 그리고 *Korea's Fight for Freedom* vol. I (Oliver 1951), *Vital Speeches of the Day* 등을 1차 자료로 활용했다.

2.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연합(UN)의 대한민국 승인까지(1948.7.24~1948.12.12)

이 시기의 141일 동안 총 41회의 연설들이 확인된다. 첫 연설은 1948년 7월 24일 중앙청 광장에서 있던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였다.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취임 선서에 이어서 이 대통령의 취임사가 있었다. 그는 일제 압제를 상기시키며 “내 집을 내가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필경은 남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고 역설했으며, 공산당의 “매국주의”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¹⁰⁾ 공산화 위기에 처한 세계 각지를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공산화를 경계했던¹¹⁾ 이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안정을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9) 시인(詩人)이었던 김광섭(金光燮, 1905~1977)은 해방 전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학생들에게 민족사상을 고취했다는 혐의로 구속, 4년여간 복역했다. 해방 후 민족주의, 민주주의에 뜻을 둔 문학인들과 ‘중앙문화협회’ 창립을 시작으로 좌익 문화단체의 선전에 대항했다. 미군정청 공보국장직을 수행했으며, 3년간 이 대통령 공보비서로 일했다. 이후 경희대학교 교수, 국제 펜클럽(International PEN) 한국본부 중앙위원을 지냈다. 김광섭, 『김광섭 自敘傳_나의 이력서: 시와 인생에 대하여』, 서울: 한국기록연구소, 2014, 312-16쪽.

10) 『第1回 國會速記錄 第34號』, 1948년 7월 24일.

11)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Seoul: Panmun Book, 1978), p.180.

1948년 9월 파리 국제연합(UN) 총회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이 대통령은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조성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그는 국제연합(UN)의 한국 승인을 미군 철수에 대한 안보적 대비로 간주했고,¹²⁾ 한국 승인을 반대하는 국가들과의 “격렬한 전투(hot battle)”¹³⁾가 될 승인 외교를 염두에 두었다. 1948년 8월 15일 국제연합(UN)과의 공조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 영문 기념사가 당일 미국 언론에 보도되었고 “열렬한 환영(warmly welcomed)”을 받았다.¹⁴⁾ 국내 주요 일간지들은 이 대통령 기념사에 대한 미국 언론의 호평을 소개하며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다.¹⁵⁾

그런데 현장에서 이 대통령이 낭독한 국문 기념사는 국제여론에 치중한 영문 기념사와 차이가 있었다. 그는 영문 기념사와 달리 국문 기념사 四항에서는 정부 권위와 안정에 관한 단호한 표현들을 사용했다. 통일문제를 다루었던 五항은 농민과 노동자를 겨냥해 전면 수정했으며 계급전쟁에 대한 경고도 담았다.

四, [중략] 정부를 불복한다든지 번복하려는 권리는 허락한 일이 없으니 어떤 불충분자가 있다면 공산 분자 여부를 물론하고 혹은 개인으로나 또 당으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에는 결코 용서가 없을 것이니 [중략]

12) 1948년 3월 1일 ‘중앙정부 수립 결정안 축하 국민대회’에서의 연설. 『조선일보』, 1948년 3월 2일.

13) “From Dr. Rhee to Ben and Oliver”(1948.7), 國史編纂委員會, 『大韓民國史資料集 28: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 1(1944~1948)』, 果川: 國史編纂委員會, 1996a, 457쪽.

14) Oliver Elliott, *The American Press and the Cold War: The Rise of Authoritarianism in South Korea, 1945-1954*(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AG, 2018), p.98.

15) 『동아일보』, 1948년 8월 18일; 『조선일보』 1948년 8월 18일.

五, 정부에서 가장 전력하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근로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략] 공산당의 주의는 계급과 계급 사이에 충돌을 붙이며 단체와 단체 간에 분쟁을 붙여서 서로 미워하며 모해를 일삼는 것이나 우리의 가장 주장하는 바는 계급전쟁을 피하고¹⁶⁾ [후략] [밑줄 추가]

이 기념사는 민족통합을 저해하고 독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¹⁷⁾ 공산주의자들의 폭력혁명노선¹⁸⁾을 겨냥한 것이었다. 특히, 남로당 제주도당은 5·10총선을 저지하고 평양 주도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지하 선거를 강행하고 있었다.¹⁹⁾ 이 대통령의 기념사에 이어서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연설에 힘을 실어 주었다.²⁰⁾

당시 평양의 공산주의자들은 38선 이남의 군·경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었다.²¹⁾ 반민족행위자라는 이유로 해직된 뒤 남로당의 사주로 군에 입대하는 경찰이 적지 않았으며, 군은 남로당의 침투 표적이 되고 있었다.²²⁾ 이 대통령은 군·경이 공산당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것을

16) 公報處, 『大統領李承晩博士談話集』, 서울: 公報處, 1950, 23-25쪽.

17) Frank and Park, op. cit., 2018, pp.216-17.

18)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1: The Movement*(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298-311.

19) 제주4·3사건은 아직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전초적 반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길언, 『정치권력과 역사 왜곡: 제주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비판』, 파주: 태학사, 2016, 134쪽.

20) 『동아일보』, 1948년 8월 16일.

21) 쉬띠꼬프, 쩌렌찌이 포미치, 전현수(역주·해제), 『국사편찬위원회 해외사료총서 10: 쉬띠꼬프일기 1946~1948』,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4, 171-73쪽.

22) 손세일, 앞의 책, 2015, 585쪽.

경제했으며,²³⁾ 대한민국의 국제적 승인과 안보를 위해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신속히 이양받아 정부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이 체결되자 공무원들에게 부패와 공산주의를 경고했다.²⁴⁾ 국제연합(UN) 총회 개막을 3일 앞둔 9월 18일에는 직접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다.²⁵⁾

1948년 9월 30일 국회에서 이범석(李範奭, 1900~1972) 국무총리가 이 대통령의 공적인 언급들을 종합, 정리한 시정방침을 대독했다. “동족상잔의 참화를 방지”하며 “민족통일, 강토 완성(完整)”을 위한 당면 정책들로 국제적 승인 추진, 국군 건설, 치안 확보가 제시되었다.²⁶⁾ 10월 12일 이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졸업식(7기 특별반)에 임석해 “국권을 회복하고 국토를 방비”하는 데 힘을 것을 당부했다.²⁷⁾ 통일정책을 외면했다는 비판²⁸⁾과 달리, ‘한반도’를 영토로 설정한 헌법 제4조와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제6조에 입각한 통일 의지가 표명되었다.

1948년 8월 15일에 있었던 맥아더 연합군 사령관의 축하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10월 19일 도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하네다(羽田) 공항 도착 직후 기자단에게 국가안보가 방일(訪日)

23) “From Dr. Rhee to Ben and Oliver”(1948.9.1), 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6a, 463쪽.

24) 『서울신문』, 1948년 9월 15일.

25) 「第1回 國會速記錄 第69號」, 1948년 9월 18일.

26) 「第1回 國會速記錄 第78號」, 1948년 9월 30일.

27) 『국민신문』, 1948년 10월 13일.

28) 선행연구는 “통일민족국가 건설운동”이 아닌 “단정운동”을 해왔던 이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 통일문제에 관한 언급을 회피했다고 서술했다. 서중석, 앞의 책, 2002, 286-88쪽.

목적들 중 하나임을 밝혔다.²⁹⁾ 공교롭게도 이날 밤 여수 주둔 육군 제14연대에서 제주도 파병 반대를 주장하는 남로당계 군인들의 주도로 반란 사건이 발생했다.³⁰⁾ 이어서 11월 2일 대구의 제6연대에서도 반란 사건이 발생하며³¹⁾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신생 독립정부의 존속을 위협했다.

귀국 후 이 대통령은 국내외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 반란 사건에 신속히 대응했다.³²⁾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정을 직접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도지사들과 경찰청장들을 소집해 “공산 분자의 극악한 행동의 소탕”을 강조했다.³³⁾ 국회의원들에게는 소련이 한국 승인을 반대하고 조선인민군을 증강하는 시국에 미군 철수나 개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³⁴⁾ 대국민 연설에서는 조선인민군의 남침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군 철수에 따른 안보적 불안을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미군이 다 철퇴하고 이북 공산군이 남한으로 내려온다면 국회의
원들이 민족의 생명과 치안을 보호할 방책은 무엇인가 [중략] 이
위기에 처하여 이런 문제를 알고 창조했다면 이는 과연 남이 알
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중략] 정부는 밖에서 공산당이 치고 안

29) 『조선일보』, 1948년 10월 21일.

30)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2025년 발간 예정인 진상조사보고서에 “여수사건의 성격과 명칭”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식보고서 발간에 앞서 이 논문에서는 지역명에 따른 명명 보다 일단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필요한 서술에 국한하였다.

31) Scalapino and Lee, op. cit., 1972, p.306.

32) 『조선일보』, 1948년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9일; Elliott, op. cit., 2018, p.100.

33) 『서울신문』, 1948년 11월 5일.

34) 「第1回 國會速記錄 第97號」, 1948년 11월 6일. 1948년 10월 12일 국회 소장과 의원들은 외군 철퇴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으며, 11월 5일 국회 시국수습대책위원회에서 “정부는 본 사건에 책임을 지고 거국적 강력 내각을 조직하여 민심을 일신할 것”을 포함한 결의안을 상정했다. 「第1回 國會速記錄 第87號」; 「第1回 國會速記錄 第96號」, 1948년 10월 13일; 11월 5일.

에서 국회가 처서 내외 상응으로 민족 생명과 국가 운명만 위태
케 한다면³⁵⁾ [후략] [밑줄 추가, 현대문으로 수정]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³⁶⁾ 국회는 「국군조직법」, 「국
가보안법」, 「미군 주둔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연설에
공명했다.³⁷⁾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국방, 치안의 버팀목이 되
어야 한다는 연설들을 이어갔다.³⁸⁾ 국민의 국토방위 의무를 명
시한 헌법 제30조에 따라 호국군(護國軍) 창설을 촉구하고, 예비
전력의 보완책으로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과 학도호국단(學徒護
國團) 결성을 독려하는 연설들이었다.³⁹⁾ 또한, 토지개혁에 관한
방송 연설을 통해 농민들의 국토수호 의지도 복돋웠다.⁴⁰⁾ 국방
부는 대통령의 의도를 반영해 추가 모병을 실시하며 한국군의
부대 증편에 착수했다.⁴¹⁾

1948년 12월 6일 한국 독립에 관한 결의안이 국제연합(UN)
총회 정치위원회에 상정되어 12월 8일 통과되었다. 이 대통령은
12월 10일 국내외 기자들에게 “Justice at any cost! [중략] 평
화를 희생하더라도 법과 공정을 지켜서 누구든지 이것을 범하는
개인이나 나라에 대해서는 벌을 주어야 될 것”이라고 역설했
다.⁴²⁾ 일본의 하와이 공습 직전에도 집단안보의 필요성을 제기
한 바 있었던⁴³⁾ 이 대통령은 국제연합(UN)의 한국 승인이 국제

35) 『서울신문』, 1948년 11월 12일.

36) 「第1回 國會速記錄 第101號」, 1948년 11월 11일.

37) 「第1回 國會速記錄 第105號」; 「第1回 國會速記錄 第108號」; 「第1回 國會速記錄 第109號」, 1948년 11월 15일; 19일; 20일.

38) 『국제신문』, 1948년 11월 28일; 『남조선민보』, 1948년 12월 3일.

39) 『경향신문』, 1948년 12월 1일; 5일; 8일.

40) 『자유신문』, 1948년 12월 7일.

41) 『동아일보』, 1948년 11월 16일.

42) 金玗燮, 『李大統領電話錄』, 서울: 中央文化協會, 1950, 137-40쪽.

43) Syngman Rhee, *Japan Inside Out: The Challenge of Today*(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41), pp.196-97.

사회가 유화책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12월 11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북에 총선거를 진행해서 [중략] 우리 국회에 참가”해야 하며, “이북동포들은 더욱 단단히 결심하기를 [중략] 남북통일을 이의없이 반대없이 성취하기를 도모”해야 한다며 국제적 정당성에 기초한 통일 의지도 피력했다.⁴⁴⁾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국제연합(UN)에 상정된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한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도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⁴⁵⁾

이 시기 이 대통령의 연설문들에는 미군 철수에 따른 대북 방어력 약화와 이남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국가전복 위험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신생국의 안보를 낙관할 수 없었던 그는 국제연합(UN) 승인의 안보적 의미를 중시하며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승인 외교에 대한 국내외적 지지를 이끌어 냈다. 취약한 안보 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1948년 10월 19일 육군 제14연대 반란 사건 이후의 연설들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수습 대책 마련과 국민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통령 연설만으로 공산 진영으로부터 불어오는 이른바 “북풍(the north wind)”⁴⁶⁾을 차단하고 국내의 안보 불안을 일소하는 데는

44) 『서울신문』, 1948년 12월 14일.

45) 정인섭, “UN 총회 한국정부 승인 결의(제195호) 성립 과정과 의미 분석”,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1호, 2022, 269-71쪽. 헌법 영토조항이 가결되기 전, 국회에서는 “만주의 북간도” 등도 “우리 국토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第1回 國會速記錄 第22號」, 1948년 7월 1일. 대한제국의 강역을 대한민국이 계승해야 한다는 영토 인식을 바탕으로 당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38선 이북 지역에도 행사되어야 한다는 통일 의지를 표명했다. 「第1回 國會速記錄 第38號」, 1948년 8월 3일. 언론에서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는 우리의 강토”라는 인식에 기초해 통일에 대한 염원이 표출되는 등 통일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동아일보』, 1948년 12월 26일.

46)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I: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417.

한계가 있었지만, “취약국가”⁴⁷⁾에서 국방과 치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안보 의지를 결집하고자 했다는 의미가 있다.

3. 국제연합(UN)의 대한민국 승인 이후 주한 미군 철수까지(1948.12.12~1949.6.30)

이 시기 200일간의 국면에서 이 대통령은 76회 이상 연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한국 승인 결의안 제195호(Ⅲ)가 채택되었다.⁴⁸⁾ 1949년 1월 15일 중국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은 톈진(天津)을 점령했고, 31일에는 베이징(北京)에 입성했다.⁴⁹⁾ 이 대통령은 동북아 대륙에서의 국공내전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국제적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군·경과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헌법상 영토 방위를 위해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⁵⁰⁾ 한국 해군의 장교 후보생들과 인천항을 방문한 미 해군 장병들에게 대일 위협인식과 해양주권 수호 의지도 표명했는데,⁵¹⁾ 이 같은 대통령의 안보 인식과 발언은 지상군 육성이 강조되던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해군력 건설을 뒷받침했다.⁵²⁾

이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한국의 “자유”를 강조하며 “3천리

47) 과대성장국가 개념에 대비되는 취약국가 개념에 관해서는 이택선,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국가건설의 시대 1945~1950』, 서울: 미지북스, 2020, 35~38쪽.

48) UN General Assembly,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1948).

49) 『조선일보』, 1949년 1월 18일; 2월 2일.

50) 『경향신문』, 1949년 1월 4일; 11일; 『서울신문』, 1948년 12월 21일; 23일.

51) 『동아일보』, 1948년 12월 17일; 『서울신문』, 1949년 1월 26일.

52) 김명섭·이호준, “6·25전쟁 이전 이승만정부의 해양위협인식과 해군정책, 1948~1950”, 『국제정치논총』 제62집 제4호, 2022, 283~324쪽.

강토를” 합하기 위해 이북 국민들도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⁵³⁾ 국제연합(UN)의 한국 승인에 따라 이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월남자들의 증언이 연일 보도되고 월남자들의 수도 격증하던 시점이였다.⁵⁴⁾ 국무회의에서는 이 사안을 비롯해 이북 내 정당·사회단체의 분열, 민족진영의 강화, 해주에서의 의거 사건 등을 다루었다.⁵⁵⁾ 이북에서는 1949년 상반기에 1948년보다 더 많은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⁵⁶⁾ 국방부는 대통령의 방송 연설을 기점으로 심리전 차원의 대북 방송을 전면 확대했다.⁵⁷⁾

수 개월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 수호에 관해 연설했지만, 1949년 2월 7일 외국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긴급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모스크바 방송에서 38선 이북의 소련군은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선전하며 미군도 신속히 철수할 것을 압박해 오던 상황이었다.⁵⁸⁾ 이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출석해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이것은 중국 모양으로 또 소련을 환영해 드리며 미국을, 민주 진영을 내보내는 것이다. [중략] 미국 군인이 얼마 아니라도 여기 있기만 하고 보면 소련 군사가 여기 내려올 수 없을 것 [중략] 지금 미국 사람들이 아무쪼록 이 대한에서 전쟁이 나 가지고 국

53) 金玼燮, 앞의 책, 1950, 91-93쪽. 냉전 시기 “자유세계(free world)”라는 용어는 소련과 그 동맹국들을 도덕적,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수사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Kenneth Osgood, *Total Cold War: Eisenhower's Secret Propaganda Battle at Home and Abroad*(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6), p.9.

54) 『동아일보』, 1949년 1월 1일; 9일; 15일.

55) 『제12회 국무회의록』, 1949년 1월 21일.

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 남북 조선의 정치경제 상황 개요”(1949.9.15),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해외사료총서 11: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과찬: 국사편찬위원회, 2006, 41-42쪽.

57) 『동아일보』, 1949년 1월 11일; 『조선일보』, 1949년 3월 13일; 5월 3일; 6월 2일.

58) 『조선일보』, 1949년 1월 4일.

제대전이 일어나지 말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나 하면 세계대전이 나며는[나면은] …… 우리나라에서는 그 결과로 손해를 우리가 제일 많이 당할 것입니다.⁵⁹⁾ [밑줄 추가]

이 대통령은 국회의 미군 철수 중용이 미국과 민주주의 진영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비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인들은 공산당에 호응해 가는 중국인들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국제대전”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일찍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독립을 잃게 되었다고 통탄했던⁶⁰⁾ 그는 미군 철수로 인한 전쟁 발발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 연설 이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긴급동의안은 부결되었다.

이 대통령은 미군 철수를 늦추고, 미군 철수가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한국군 증강과 연계하고자 했다. 그는 1949년 2월 8일 로얄(Kenneth C. Royall Sr., 1894~1971) 미 육군장관에게 군사원조를 요청하며 복진 가능성을 타진했다.⁶¹⁾ 국제연합(UN)의 승인 이후에 파악된 이북 내 동향을 근거로 한 발언이었다. 이어서 올리버에게 보낸 전문에서는 “한국이 조만간 또 하나의 중국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짓밟히더라도 싸우는 것이 한국의

59) 『第2回 國會定期會議速記錄 第24號』, 1949년 2월 7일.

60) 이승만,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외(편), 『독립정신 영인본: 우남 이승만 전집 2』,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216-23쪽; 이승만, 김명섭·김효선(교감·주해),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외(편), 『청일전기: 우남 이승만 전집 4』,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9-11쪽.

61)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Secretary of the Army(Royall)” (1949.2.8),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Vol. VII, Part 2*(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a), pp.956-58. 로얄 장관은 한국군 규모, 미군 철수에 대한 합의를 위해 한국에 파견되었다.

지배적 정서”라고 밝혔다.⁶²⁾ 미군 철수라는 국가안보적 전환기를 앞두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양하고 국토방위에 대한 국민의 협력을 촉구하고자 했던 것이다.⁶³⁾ 1949년 2월 22일 이 대통령은 육·해군 고급장교들에게 “국민개병(國民皆兵)”을 강조했다며, 3·1절 기념식에서는 “남북이 호응하여 38선을 철폐”해야 한다며 국권 수호를 위한 민족적 단결을 촉구했다.⁶⁴⁾

이어서 이 대통령은 1946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절기상 청명(淸明)이 지나자 지방 순회 연설에 나섰다.⁶⁵⁾ 1949년 4월 9일 제주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4·3사건 주동자들과 제주도민들에 대한 귀순, 선무 작전을 시찰하고 국회의원 재선거 참여를 독려했다.⁶⁶⁾ 귀순자들에게 과거는 잊고 충성된 국민이 되어 달라고 훈시했고, 일반 도민들에게는 귀순자들이 “국민도(國民道)”를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⁶⁷⁾ 모스크바와 평양에서 제주도 빨치산 투쟁 1주년을 축하하는 방송이 송출되던 때에⁶⁸⁾ 후방지역 불안을 해소하는 대항적 연설이었다.

1949년 4월 22일부터 29일까지는 삼남 지방에서 순회 연설했다.⁶⁹⁾ 8일간 천안, 대전, 대구, 영천, 경주, 울산, 덕하, 부산,

62) “Present Political Situation in Korea”(1949.2.12), 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6b, 32-36쪽.

63) 미국은 한국의 공산화와 일본 안보를 우려해 주한 미군의 철수일을 재검토했고, 최종적으로 1949년 6월 30일까지 철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Re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the President”(1949.3.22), U.S. Department of State, op. cit., 1976a, pp.969-78.

64) 『동아일보』, 1949년 2월 24일; 3월 3일.

65) 1946년 이 대통령의 지방 순회 연설들에 대한 사진들과 상황 설명은 김명섭, 『푸랜시스카 사진의 한국사 I』,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 84-92쪽.

66) 이 대통령의 제주도 연설 활동에 관한 사진들과 상황 설명은 김명섭, 위의 책, 2021, 162-67쪽.

67) 『동아일보』, 1949년 4월 12일.

68) “The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49.4.9), U.S. Department of State, op. cit., 1976a, pp.983-84.

69) 당시 사진 자료들과 상황 설명은 김명섭, 위의 책, 2021, 172-225쪽.

마산, 진해, 통영, 여수, 순천, 구례, 남원, 전주, 이리, 정읍, 광주, 수원 등지를 차례로 방문했고, 적어도 18회 이상 연설했다. 적게는 70만, 많게는 4백만 명이 이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것으로 추산된다.⁷⁰⁾ 공산주의자들의 전복 행위를 견제하고자 전국의 국민회, 청년단체가 군·관·경에 협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지방 연설의 주요 목적이었다.⁷¹⁾ 이 대통령은 충청·경상도 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각지의 치안을 격려했다.⁷²⁾ 군사작전이 계속되던 전라도 각지에서 강토를 회복해 공산군의 침범을 막아야 한다는 요지로 실시한 연설들도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⁷³⁾

지방 순회를 마친 이 대통령은 ‘국민개병’에 대한 민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⁷⁴⁾ 언론은 대통령의 순회 연설이 공산주의자들의 유격전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무하고 사기를 북돋웠다고 호평했다.⁷⁵⁾ 수 개월간 국민 개개인이 국가안보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연설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방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었다.⁷⁶⁾ 전국 각지에서는 연일 국토방위 강화 국민대회가 개최되었고 국민대회에서 주창된 내용들은 이 대통령의 연설 요지와 합치했다.⁷⁷⁾

미군 철수에 대비한 한국군의 병력 증강과 예비전력의 확보도

70) 『동아일보』, 1949년 5월 6일;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1954), p.280.

71)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1949.5.2), U.S. Department of State, Ibid., 1976a, pp.1000-3.

72) 『서울신문』, 1949년 4월 26일; 『수산경제신문』, 1949년 4월 26일.

73) 『동아일보』, 1949년 4월 20일; 5월 7일; 『연합신문』, 1949년 4월 29일.

74) 『조선일보』, 1949년 4월 30일.

75) 『연합신문』, 1949년 4월 29일; 『동아일보』, 1949년 5월 9일.

76) 『동아일보』, 1949년 6월 11일.

77) 『동아일보』, 1949년 6월 12일; 24일; 7월 2일; 17일; 18일; 『경향신문』, 1949년 6월 20일.

촉진되었다.⁷⁸⁾ 한국군은 규모 면에서 확장하면서 대대적인 숙군(肅軍)을 통해 내부 공산 세력을 척결했다.⁷⁹⁾ 호국군과 대한청년단은 전후방 각지에서 군·경의 국방, 치안 활동을 보조했다.⁸⁰⁾ 이들을 근간으로 1949년 말에 편성된 청년방위대(靑年防衛隊)는 6·25전쟁에서 한국군 병력 보충, 공비토벌, 후방 치안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⁸¹⁾ 학도호국단은 전시 학도의용군의 조직적·정신적 모체가 되었다.⁸²⁾

1949년 봄의 지방 순회 연설 이후 육군 2개 대대의 월북, 개성 송악산 전투 등에 이어서⁸³⁾ 국회프락치사건, 반민특위 특경대 해산, 김구 암살 사건 등이 이어졌다. 이 시기의 국내 정세를 진보적 소장파와 김구 세력에 대한 이 대통령 측의 “6월 공세”로 보는 선행연구도 있다.⁸⁴⁾ 그러나 1년 뒤에 발발한 전쟁은 국회프락치사건 당시의 안보적 우려를 병리적이거나 공작적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게 했다.⁸⁵⁾ 주한 미군 철수가 개시되면서 이 대통령은 각급 조직의 안보적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⁸⁶⁾ 특히,

78) 윤시원, 앞의 논문, 2010, 234-35쪽; 남정옥, 『6·25전쟁시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 지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43; 45; 47쪽.

79) 6·25전쟁 초기 불리한 전황(戰況)에서도 한국군 장병들이 조선인민군에 집단적으로 투항하는 일이 없었던 것은 이 같은 숙군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남정옥, 위의 책, 2015, 51쪽.

80) 『동아일보』, 1949년 5월 14일; 18일; 7월 11일; 『조선일보』, 1949년 9월 11일; 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 『護國軍史』, 서울: 護國軍士官學校總同窓會, 2001, 51-54쪽.

81) 남정옥, 앞의 책, 2015, 42-46쪽.

82) 나중남 외,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32쪽.

83) 『조선일보』, 1949년 5월 9일.

84) 서중석, 앞의 책, 2002, 201-57쪽; 김정기, 『국회프락치사건의 재발견 II. 그레고리 헨더슨의 한국정치담론 2: 중간지대의 정치합작』, 파주: 한울, 2008, 13-167쪽.

85) 안도경, “1949 국회프락치사건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제55집 제5/6호, 2021, 86쪽.

86) 『동아일보』, 1949년 6월 7일; 『수산경제신문』, 1949년 6월 19일.

국회가 안보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연설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⁸⁷⁾ 국가 수호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지지를 의식한 국회는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⁸⁸⁾

이 시기 이 대통령은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의 승리와 주한 미군 철수의 결과가 장차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국제연합(UN)으로부터 승인받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상 영토를 방위하고 해양주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이북의 군과 민을 포용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미군 철수가 기정사실화되자 중앙과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연설 활동을 전개하며 국민의 안보 우려를 상쇄하고 각계각층의 국토방위 인식을 제고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연설들은 미군 철수 전 ‘국민개병’을 위한 국방정책 추진에 기여했다.

4. 주한 미군 철수 이후 6·25전쟁 발발까지 (1949.6.30~1950.6.25)

이 시기 360일 동안 이 대통령은 92회 이상 연설했다. 1949년 6월 30일 미 육군부는 주한 미군 전투부대의 철수 완료 성명을 발표했다.⁸⁹⁾ 미 군사고문단 500여 명만이 한국에 잔류한 상황에서 평양의 공산주의자들은 38선 침범을 확대했다.⁹⁰⁾ 미군 철수

87) 「第3回 國會臨時會議速記錄 開會式」; 「第3回 國會臨時會議速記錄 第15號」, 1949년 5월 21일; 6월 13일.

88) 『조선일보』, 1949년 7월 16일.

89) 『조선일보』, 1949년 7월 2일.

90)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188-98쪽.

에 앞서 전국적 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투철한 안보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이 대통령은 국제적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연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1949년 7월 15일 주한 교황 사절 변(Patrick J. Byrne, 1888~1950)의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 대통령은 교황 피우스 12세(Pius XII, 1876~1958)의 반공 선언을 언급하며 가톨릭교회를 “강력한 동맹국”으로 칭했다.⁹¹⁾ 일찍이 반종교주의를 표방, 실행하는 러시아식 공산주의를 반박했던 이 대통령은 전투적 반종교주의가 반식민주의와 결합하여 극렬한 폭력노선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가톨릭과 연대했다. 교황청은 한반도 이북 지역에서의 종교탄압을 비판하면서 변 주교를 통한 반공적 연대를 강화했다.⁹²⁾

1949년 7월 28일 초대 주한 중화민국 대사로 부임한 사오위린(邵毓麟, 1909~1984)의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 대통령은 “형제지국”인 양국의 “순망치한”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고 답사한 뒤, 8월 6일부터 사흘간 진해에서 한중 영수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⁹³⁾ 8월 7일 진해 회담 두 번째 날 만찬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장제스 총재를 중국의 “유일한 영도자”로서 환영했고, 이 회담이 반공 동맹체 결성을 향한 진보를 이룩할 것임을 밝혔다.⁹⁴⁾ 태평양동맹 구상은 비록 미국의 “냉담한” 반응 등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지만,⁹⁵⁾ 국제적 조건에서 오는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91) 『경향신문』, 1949년 7월 16일. 교황은 공산주의 위협을 받는 아시아 민족들이 책임을 자각해야 하며, 공산주의자들 속에 있는 교도들은 파문하겠다고 선언했다. 『경향신문』, 1949년 7월 9일; 15일.

92) 『경향신문』, 1949년 8월 21일.

93) 『조선일보』, 1949년 7월 29일; 사오위린(邵毓麟)(지음)이용빈 외(옮김), 『사오위린 대사의 한국 외교 회고록: 중화민국과 한국의 근대 관계사』, 파주: 한울, 2017, 226-28쪽.

94) 『자유신문』, 1949년 8월 10일.

95) Kim, Myongsob, “Declined Invitation by Empire: The Aborted Pacific Pact

위한 장제스 총재와의 반공 협력관계는 이후로도 계속되었다.⁹⁶⁾

태평양동맹 구상이 유관 국가들로부터 호응받지 못했던데 반해 당시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우호 관계는 견고해지고 있다고 선전되었다.⁹⁷⁾ 이 대통령은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 제 1주년 기념식’에서 1년간 국가안보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강한 외국”의 침공에는 단독 대응이 어렵다고 고백하며 동아시아에서 강화되고 있는 공산주의 연대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했다.⁹⁸⁾ 얼마 뒤에 중국공산당 군대 내 한인 부대들이 이북으로 환송(還送)되었다는 사실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는 소식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었다.⁹⁹⁾ 이 대통령은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화를 압록강-두만강 선에서 저지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북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당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島嶼)”였다. 그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진이 정당하지만 국제연합(UN)과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인내하고 있다고 밝혔다.¹⁰⁰⁾

and the Unsolved Issue of Regional Governance”, In Dong-Sung Kim, Ki-Jung Kim, and Hahnkyu Park, *Fifty Years after the Korean War: From Cold-War Confrontation to Peaceful Coexistence*,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0, pp.139-50.

96) 최영호, “이승만 정부의 태평양동맹 구상과 아시아민족반공연맹 결성”, 『국제정치논총』 제39집 제2호, 1999, 170-80쪽.

97) 『조선일보』, 1949년 8월 11일.

98) 金玼燮, 앞의 책, 1950, 30-40쪽.

99) 『동아일보』, 1949년 9월 10일; 10월 3일. 1949년 5월 김일성(金日成, 1912~1994)은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에게 특사를 보내 중국공산당 군대에 편성된 한인 부대들의 이양을 요청했고 수락을 받았다. 병력은 총 6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그 주력이 주한 미군 철수 직후인 1949년 7, 8월에 입북해 조선인민군으로 편입되었다.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 142-59쪽. 마오쩌둥의 이 수락은 김일성에 대한 “장차지원(future backing)”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쉰이 데이빗,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中國의 6·25戰爭參戰』,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39-55쪽.

100) 『조선일보』, 1949년 10월 2일; 8일; 16일; 22일.

특히, 1949년 10월 31일 미 순양함 세인트 폴(Saint Paul) 호에서의 연설은 미국 정계와 언론의 주의를 끌었다. 이 대통령은 미 해군 장병들에게 남북 분열의 장기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으로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는 한국인들이 전투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이어서 한국이 독립을 유지하는데 미국의 물질적, 정신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¹⁰¹⁾ 장기적 분단과 피침(被侵)의 위험성을 피력하고자 했던 의도는 일각에서 즉각적 무력 통일을 주장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대통령은 곧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진의를 설명했다으며, 미국 측에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¹⁰²⁾

이 시기 이 대통령의 복진 발언들은 미 군사원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남북 군사력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든 “공갈”이나 “허세”로 평가되었다.¹⁰³⁾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한국군 복진 시 한반도 이북의 군과 민이 봉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¹⁰⁴⁾ 이북 정권에 대한 각계의 저항과 그 여파로 귀순한 자들이 증가하고 있었고 이들을 통해 유사시 “민중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전해지는 가운데¹⁰⁵⁾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대통령의 주장에 지지와 공감을 표명했다.¹⁰⁶⁾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01) 公報處, 앞의 책, 1953, 24쪽.

102) 『경향신문』, 1949년 11월 5일;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49.11.4), U.S. Department of State, op. cit., 1976a, pp.1093-94.

103) 李昊宰, 앞의 책, 1986, 346쪽; 서중석, 앞의 책, 2002, 297쪽.

104) 이 대통령 영부인 푸랜시스카(Francesca Rhee, 1900~1992)는 공세적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올리버에게 보낸 답신에서 “늘 그렇듯 대통령의 계획은 너무 앞서나가서 불가능하거나 심지어 재앙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From Mrs. Syngman Rhee to Dr. Oliver”(1949.10.24), 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6b, 174쪽. 한국 호적을 확인한 결과 “프란체스카” 등으로 표기되는 이 대통령 영부인 이름의 한국식 표기는 “푸랜시스카”이다.

105) 『경향신문』, 1949년 10월 5일; 1950년 1월 5일.

106) 『경향신문』, 1949년 11월 21일; 28일; 『동아일보』, 1949년 11월 25일; 『조선일보』, 1949년 11월 27일; 28일.

보고 받은 대북 정보, 이북 내 반공적 동향에 대한 언론 보도, 자신과 국방부의 대북 방송에 대한 기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진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었다.

이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을 김일성의 국토완정론과 대응해서 보는 견해도 있다.¹⁰⁷⁾ 그러나 결국 전쟁을 후원했던 소련과 전쟁을 억지했던 미국의 차이는 컸다.¹⁰⁸⁾ 방어를 위한 무장조차 미국에 요청해야 했던 이 대통령의 북진통일론과 1949년 국공내전 승리에 이은 공산주의자들의 남침 준비를 증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 헌법으로 이어진 강역(疆域) 인식에 기초한 것이기도 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의 남침 기도 및 전복 기도에 대한 대응적 성격도 지닌 것이었다.¹⁰⁹⁾ 당시 이 대통령은 북진 발언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대해 그렇다면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프랑스, 폴란드가 독일에 저항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반문하기도 했다.¹¹⁰⁾

1950년 1월 12일 애치슨(Dean G. Acheson, 1893~1971) 미국무장관의 연설에서 한반도와 대만이 태평양 방위선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공개되었고, 2월 중순에는 모스크바 방송을 통해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 체결 소식이 보도되었다.¹¹¹⁾ 이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방위선의 “중요한 연결고리(vital

107)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Ⅱ: 기원과 원인』, 서울: 나남출판, 1997, 612-13쪽.

108) 남정옥,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파주: 이담, 2010, 79쪽.

109)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79-80쪽.

110) “From the President Syngman Rhee to Mr. Harold Lady”(1949.11.12), 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6b, 189쪽.

111) 『동아일보』, 1950년 1월 15일; 『조선일보』, 1950년 2월 16일. 스탈린(I. V. Stalin, 1878~1953)은 1950년 1월 초 마오쩌둥과 회담하며 그의 ‘항소 일변도 정책’이 분명한 것을 보고 중소동맹을 체결했으며, 1월 30일 김일성의 개전 제안을 승인했다. 김광수, 위의 논문, 2008, 101-11쪽.

link)”로 인식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했다.¹¹²⁾ 그는 맥아더 사령관의 초청에 따라 1950년 2월 16일 다시 일본을 방문했고, 애치슨라인 선포로 인한 대한민국의 방위 문제와 태평양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원 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 아직 대외적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합군에 점령되어 있던 일본의 요시다(吉田茂, 1878~1967) 총리와는 과거사 문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국교 정상화와 방공체제 형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¹¹³⁾ 이 대통령의 방일은 중소동맹에 대한 반공진영 내 최초의 반향으로 평가되었다.¹¹⁴⁾

3·1절 제31주년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완전무결한 강토를 회복”하고 “이북동포의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맹약한 뒤, 중소 간의 연대가 한국 안보에 미칠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제일 큰 한 가지 직책은 국방군을 하루바삐 충분히 준비할 것입니다. [중략] 지금 이 시대의 세계전쟁 방식을 어느니만큼 담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요. 또 사소한 군기만으로도 부족할 것이니 우리가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은 비행기와 군함과 또 탱크와 기타 병기를 상당히 준비할 것입니다. [중략] 구라과 모든 나라들이 합동해서 공산 파동을 막은 것 같이 태평양 연안 모든 나라들도 속히 단결해서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¹¹⁵⁾ [밑줄 추가, 현대문으로 수정]

112) Oliver, op. cit., 1978, p.268.

113) 외교안보연구원, 『임정에서 인도까지: 임병직 장관 회고록』, 서울: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1998, 190-94쪽. 이 대통령의 1950년 2월 방일 당시의 사진과 상황 설명에 관해서는 김명섭, 앞의 책, 2021, 245-47쪽.

114) 『동아일보』, 1950년 2월 21일.

115) 『서울신문』, 1950년 3월 3일. 밑줄 친 인용문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One of the greatest challenges that confronted us has been to develop the means of self-defense. … We cannot, however, blind ourselves to the

이 연설의 한글본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북진을 위해 중무기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보았지만,¹¹⁶⁾ 영어본과 대조하면 그러한 의도로 확정하기 어렵다. “국방군”이라고 해석된 영어의 원문은 “자기방어 수단(means of self-defense)”이다. 대한민국 독립 정부 수립 이후 국가방위가 최대 현안이었고 중소동맹이 체결된 현재 그것은 더욱 시급한 사안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설을 북진 의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오류이다. 이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유럽의 교훈을 상기하면서 태평양의 유관 국가들이 방공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의 국방을 태평양 안보와 연결해서 보았던 이 대통령은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제7함대를 한국 해역으로 초청했다. 무쵸(John J. Muccio, 1900~1989) 대사는 미 항공모함 박서(Boxer) 호의 인천항 입항을 예고했고, “현시 효과(showing the flag)”를 기대하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¹¹⁷⁾ 1950년 4월 8일 이 대통령은 박서 항공모함에 승선해 두 차례 연설하며 한미관계 형성에서 미 해군의 역할을 치하했다. 그리고 수천 명이 “사망”하고 “전상”을 입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에 있어서의 냉전상황”임을 주지시키고자 했다.¹¹⁸⁾ 4월 9일 출항 전, 박서 항공모함의 탑재기들은 서울 상공을 편대 비행하며 방어력을 과시했다.¹¹⁹⁾

1950년 5월 이 대통령은 이북의 군사 상황에 대한 정보판단에

plain facts of modern war. Courage alone is not enough. Small arms alone are not enough. We need and we shall continue to try to get the planes and ships, the tanks and heavy artillery that our situation demands.” Syngman Rhee, “Where Do We Stand Today: United resistance of free countries of Asia”, *Vital Speeches of the Day* 16-11, (1950), p.347.

116) 李昊宰, 앞의 책, 1986, 342쪽.

117) *The Evening Star*, 18; 29 March 1950.

118) 『동아일보』, 1950년 4월 9일; 『서울신문』, 1950년 4월 9일.

119) 『경향신문』, 1950년 4월 11일.

기초해 전쟁 위협을 경고했다.¹²⁰⁾ 5·30총선 시기에도 선거의 자유 분위기를 손상하지 않되 공산당원이 피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다시 지방 순회 연설에 나섰다.¹²¹⁾ 또한, 미국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 한국의 안보 현실을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1950년 6월 17일 대일 평화조약 체결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장관 수석고문으로 임명된 덜레스(John F. Dulles, 1888~1959)가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뒤의 제2대 국회 개회식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존중히 여기려면 국가의 자유권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치사를 전한 뒤, 일본 방문에 앞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먼저” 온 덜레스를 소개했다. 덜레스는 한국을 “국제연합의 일원으로서 간주”하며 “절대로 고립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¹²²⁾ 언론은 이 대통령과 덜레스의 연설 전문을 보도하며 미국과의 반공연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¹²³⁾

1950년 6월 21일 이 대통령은 제3회 전몰군인 위령제에서 연설했다. 서울운동장을 가득 메운 각계 인사, 시민, 유가족들 앞에서 이북 동포들을 호명하며 “대한민국과 대한민족의 적과 싸워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¹²⁴⁾ 당시 미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은 38선 이남으로 통제력을 확장하려는 평양의 시도를 막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대한민국 국민의 반공적 태도(the anti-Communist

120) 『조선일보』, 1950년 5월 13일. 1950년 5월 중순에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베이징을 방문한 김일성과 박헌영(朴憲永, 1900~1956)은 마오쩌둥으로부터 남침 제한을 보장받았다. 수이, 앞의 책, 2011, 73-81쪽.

121) 이 대통령은 1950년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천안, 조치원, 청주, 대전, 김천, 구미, 대구, 삼랑진, 부산, 목포, 학교, 송정, 광주, 이리, 전주, 수원, 춘천 등지에서 최소 16회 이상 연설했다. 이에 관한 사진들과 상황 설명은 김명섭, 앞의 책, 2021, 248-84.

122) 「제7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1호」, 1950년 6월 19일.

123) 『경향신문』, 1950년 6월 20일; 『동아일보』, 1950년 6월 20일.

124) 『연합신문』, 1950년 6월 22일.

attitude of the southern Koreans)”와 “대한민국 국군의 지속적인 저항 의지(a continuing will to resist on the part of southern troops)”에 주목했다.¹²⁵⁾ “대한”¹²⁶⁾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추도사는 지난 2년간 한국인들에게 일깨우고자 했던 메시지를 함축한 것이었다.

이 시기 이 대통령의 연설들은 공산화 위협에 대한 대항적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미군 철수 이후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가톨릭교회와 연대하고, 장제스와의 진해 회담 기간에는 태평양동맹을 추진하는 연설들을 통해 국제적 안보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공산화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해 북진 주장을 공표했으며, 중소동맹에 대응하고자 태평양 유관 국가들의 단결을 역설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상이한 이해 속에서 이 대통령의 연설들은 국제사회의 전폭적 호응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반공적 국제연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반공 의지를 고양하는 효과가 있었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1948년부터 1950년 6·25전쟁 발발 전까지 209회

125) “Memorandum by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1950.6.19),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Korea, Vol. VII*(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b), pp.109-11.

126) ‘한국’과 ‘조선’ 관념의 연속, 분화와 6·25전쟁 근저의 관념충돌에 관해서는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43-49쪽.

이상의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들이 있었음을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특히, 두 개의 국가안보적 전환점들을 중심으로 세 개의 시기로 나누고, 각각의 시기에서 대통령 연설들이 국가안보와 어떤 상관성이 있었는지를 분석했다.

첫째,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 취임 때부터 국제연합(UN)이 한국 독립정부를 승인한 12월 12일까지 41회 이상의 연설들이 확인되었다. 신속히 정치·사회적 안정을 이루고 국제적 승인을 획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대국민 연설에 집중해 안보 여론을 선도하는 한편, 여수 주둔 한국군 제14연대에서 시작된 10·19사건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각계의 안보 의지를 결집하고자 했다. 이 같은 연설들로 국제연합(UN)에서의 승인 외교에 대한 국내외적 지지를 확보했고, 10·19사건 이후 국가안보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과 국민의 협력을 촉진했다.

둘째, 1948년 12월 12일부터 주한 미군이 철수한 1949년 6월 30일까지의 시기에서 확인된 76회 이상의 대통령 연설들은 중국 공산화의 추이를 반영하면서 국제적으로 승인 받은 대한민국의 수호를 강조했다. 특히, 1949년 미군 철수에 즈음해서는 전국적 연설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토방위를 위한 국민의 역할과 책임을 일깨우고자 했다. 이 시기 대통령의 연설들은 중국 공산화와 미군 철수에 대한 국민의 안보 우려를 상쇄하고 ‘국민개병’을 위한 국방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했다.

셋째, 1949년 6월 30일부터 1950년 6월 25일 개전까지의 시기에는 92회 이상의 연설들이 확인되었다. 외국 사절에 대한 연설과 장제스와의 진해 회담 연설 등을 통해 국제적 안보협력을 추진했으며, 공산군의 남침 위협을 경고하는 연설들이 주를 이루었다. 북진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연설들의 주안점은 대한민국

의 국가안보에 있었다. 대통령 연설들을 통해 반공 국제협력을 이뤄낼 수는 없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6·25전쟁을 일으키기 전 반공 국제연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반공 의지를 고양한 의미가 있었다.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들은 주로 서울에서 이루어졌지만,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순회 연설들도 실시되었다. 대북 방송을 통해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귀순을 유도하고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와 일반주민들의 “인내”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제적 의미가 있는 연설들은 영어로 이루어졌고, 해외 언론에 영어로 번역, 소개되기도 했다. 이 시기 대통령 연설들은 공산화 위협에 대한 방어적 견지에서 행해졌다. 제헌헌법에 명시된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북진통일론도 제기되었지만, 38선 이남에서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았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국회의록 회의록검색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
 국무회의기록 <https://theme.archives.go.kr/next/cabinet/viewMain.do>,
 대통령기록관 기록컬렉션 연설기록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https://digitallibrary.un.org/?ln=en>,
 『경향신문』, 『국민신문』, 『국제신문』, 『남조선민보』, 『동아일보』, 『부인신문』,
 『서울신문』, 『수산경제신문』, 『연합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한성일보』,
 公報處, 『大統領李承晩博士談話集』, 서울: 公報處, 檀紀四二八六[1953].
 國史編纂委員會, 『大韓民國史資料集 28: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 1(1944~
 1948)』, 果川: 國史編纂委員會, 1996a.
 _____, 『大韓民國史資料集 29: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 2(1949~
 1950)』, 果川: 國史編纂委員會, 1996b.
 國사편찬위원회, 『國사편찬위원회 해외사료총서 11: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과천: 國사편찬위원회, 2006.
 김광섭, 『김광섭 自叙傳_나의 이력서: 시와 인생에 대하여』, 서울: 한국
 기록연구소, 2014.
 金珖燮(編), 『李大統領訓話錄』, 서울: 中央文化協會, 檀紀四二八三[1950].
 사오위린(邵毓麟)(지음)·이용빈 외(옮김), 『사오위린 대사의 한국 외교
 회고록: 중화민국과 한국의 근대 관계사』, 파주: 한울, 2017.
 쉬띠꼬프, 켈렌찌이 포미치, 전현수(역주·해제), 『國사편찬위원회 해외
 사료총서 10: 쉬띠꼬프일기 1946~1948』, 과천: 國사편찬위원회,
 2004.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임정에서 인도까지: 임병직 장관 회고록』,
 서울: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1998.

이승만,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외(편), 『독립정신 영인본: 우남 이승만 전집 2』,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1910].

이승만, 김명섭·김효선(교감·주해),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외(편), 『청일전기: 우남 이승만 전집 4』,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1917].

The Evening Star.

Oliver, Robert T., *Korea's Fight for Freedom Volume I: Selected Addresses by Korean Statesman*, Washington, D.C.: Korean Pacific Press, 1951.

_____,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1954.

_____,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 Seoul: Panmun Book, 1978.

Rhee, Syngman, *Japan Inside Out: The Challenge of Today*,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41.

_____, "Where Do We Stand Today: United resistance of free countries of Asia", *Vital Speeches of the Day* 16-11 (1950): 346-34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Vol. VII, Part 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a.

_____,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Korea, Vol. VI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b.

2. 저서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 _____, 『푸랜시스카 사진의 한국사 I』,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1.
- 김정기, 『국회프락치사건의 재발견 II. 그레고리 헨더슨의 한국정치담론 2: 중간지대의 정치합작』, 파주: 한울, 2008.
-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
- 나중남·김광수·박일송·이내주·김현주,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 남정옥,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파주: 이담, 2010.
- _____, 『6·25전쟁시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지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기원과 원인』, 서울: 나남출판, 1997[1996].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1948~1950 민주주의·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서울: 역사비평사, 2002[1996].
- 손세일, 『이승만과 김구. 제7권, 제3부 어떤 나라를 세울까 1945~1950 (II)』, 서울: 조선뉴스프레스, 2015.
- 쑤이, 데이빗,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中國의 6·25戰爭 參戰』,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 양영조, 『남북한 군사정책과 한국전쟁: 1945-1950』,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 이택선,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국가건설의 시대 1945~1950』, 서울: 미지북스, 2020.
- 李昊宰, 『韓國 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 解放8年 民族葛藤期の 反省』, 서울: 法文社, 1986[1969].
- 현길언, 『정치권력과 역사 왜곡: 제주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 비판』, 파주: 태학사, 2016.
- 護國軍士官學校總司恣會, 『護國軍史』, 서울: 護國軍士官學校總司恣會, 2001.

- Ashley, Jeffrey S. and Jarmer, Marla J., *The Bully Pulpit, Presidential Speeches, and the Shaping of Public Policy*, Lanham: Lexington Books, 2016[2015].
- Cum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ume I: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1981].
- Edelman, Murray, *Constructing the Political Spectac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Elliott, Oliver, *The American Press and the Cold War: The Rise of Authoritarianism in South Korea, 1945–1954*,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AG, 2018.
- Hess, Gary R., *Presidential Decisions for War: Korea, Vietnam, the Persian Gulf, and Iraq*,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9[2001].
- Kim, Myongsob, “Declined Invitation by Empire: The Aborted Pacific Pact and the Unsolved Issue of Regional Governance”, In Dong-Sung Kim, Ki-Jung Kim, and Hahnkyu Park, *Fifty Years after the Korean War: From Cold-War Confrontation to Peaceful Coexistence*,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0.
- Osgood, Kenneth, *Total Cold War: Eisenhower’s Secret Propaganda Battle at Home and Abroad*,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6.
- Scalapino, Robert A. and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 Part 1: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Yang, Hee-wan, “A Critical Edition of Major Speeches by Rhee Syngman and Park Chunghee on the Issue of Korean Unification, 1945–1979”, Ph. D. Dis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85.

3. 학술논문

- 김명섭·이호준, “6·25전쟁 이전 이승만정부의 해양위협인식과 해군 정책, 1948-1950”, 『국제정치논총』 제62집 제4호 (2022): 283-324, <http://doi.org/10.14731/kjir.2022.12.62.4.283>
- 안도경, “1949 국회프락치사건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제55집 제5/6호 (2021): 69-92, <http://doi.org/10.18854/kpsr.2021.55.5.003>
- 윤시원, “제1공화국 초기 군사외교의 실패에 대한 고찰 1948~1950: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중심으로”, 『軍史』 第77號 (2010): 217-249, <http://doi.org/10.29212/mh.2010..77.217>
- 이은선, “이승만의 남선 순행과 정읍 발언의 의미 분석”,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9집 2호 (2018): 39-74, <http://doi.org/10.18206/kapdh.39.2.201802.39>
- 全英雨, “李承晩의 演說活動에 대하여: 1895年~1942年”, 『畿甸語文學』 第3輯 (1988): 51-76.
- 정인섭, “UN 총회 한국정부 승인 결의(제195호) 성립 과정과 의미 분석”,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1호 (2022): 241-277, <http://doi.org/10.18703/silj.2022.06.29.1.241>.
- 최영호, “이승만 정부의 태평양동맹 구상과 아시아민족반공연맹 결성”, 『국제정치논총』 제39집 제2호 (1999): 165-182.
- 한서영, “미일전쟁 시기 이승만의 연설활동과 공공외교, 1941-1945”, 『국제정치논총』 제61집 제3호 (2021): 83-119.
- 한서영·김명섭, “미국 유학 시기 이승만 강연활동의 양상과 함의”, 『국제정치논총』 제59집 제2호 (2019): 363-395.
- Frank, David A. and WooSoo Park, “Syngman Rhee, Robert T. Oliver, and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Global Cold War”, *Rhetoric Society Quarterly* 48-2 (2018): 207-226, <http://doi.org/10.1080/02773945.2017.1302095>

〈Abstract〉

A Study on Presidential Speeches of Syngman Rhee

– Focusing on National Security Issues before
the Outbreak of the 6·25 War in Korea –

Kim, Min-Sik
Kim, Myong-Sob

In this study, President Syngman Rhee's two-year speeches before the total Communist attack on the Republic of Korea (ROK) adopting the presidential system since 1948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with a focus on national security issues. During this time, he delivered more than 209 speeches, including recorded and English speeches.

From July 24, 1948, to December 12, 1948, President Rhee delivered over 41 speeches to rapidly recover the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of the ROK. Furthermore, he put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national unity in order to obtain the recognition by the United Nations (UN).

From December 12, 1948 to June 30, 1949, President Rhee delivered over 76 speeches to alert Korean people,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Chinese communist victory in mainland China. Before the withdrawal of the US troops from the ROK in 1949, he called for the Korean people's responsibility on national security.

From June 30, 1949, to June 25, 1950, President Rhee delivered over 92 speeches warning against the threat of communist invasion and urg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Moreover, based on the territorial clause of the ROK's Constitution, Rhee mentioned the reunification of Korea by recovering the northern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Rhee's speeches, from his inauguration 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ROK in 1948 to the outbreak of the 6·25 War in 1950, were both defensive and counteroffensive against communist threat and provocation. His speeches,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cused on encouraging the will of the ROK Army and Korean people for national security and achieving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Keywords: Presidential Speech, Syngman Rhee, National Security

